

“우리는 모두 이 원 안에 있는 한 사람이예요.  
원 안에서는 모두 동등하고,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숲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아이들의 희망찬 몸짓

‘너희’라는 구분은 아이들을 한데 뭉뚱그린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성실하게 ‘관계의 언어’를 발명하니까,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느티나무의 품 안에서, 아이들은 ‘앗아 갈까  
두려운 행복’을 경험한다. 가정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이들을 ‘수호대’로  
뭉는다.

나는 ‘대안’을 요구하는 사람을 의심한다.  
그것이 자주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발언되기 때문이다. 대안은 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김중미가 만든 세계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본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그 세계의 주인이다.

◆ 장일호(『시사IN』 기자)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던 믿음이  
공기처럼 존재하는 시대에 연대와 우정을  
강조하는 일은 종종 순진하다 처부된다.  
하지만 느티 샘을 비롯한 “느티나무 수호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인간이 ‘함께’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은 오직 연대와 우정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 확신은 당분간 이 ‘순진한 믿음’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이다.

◆ 김영희(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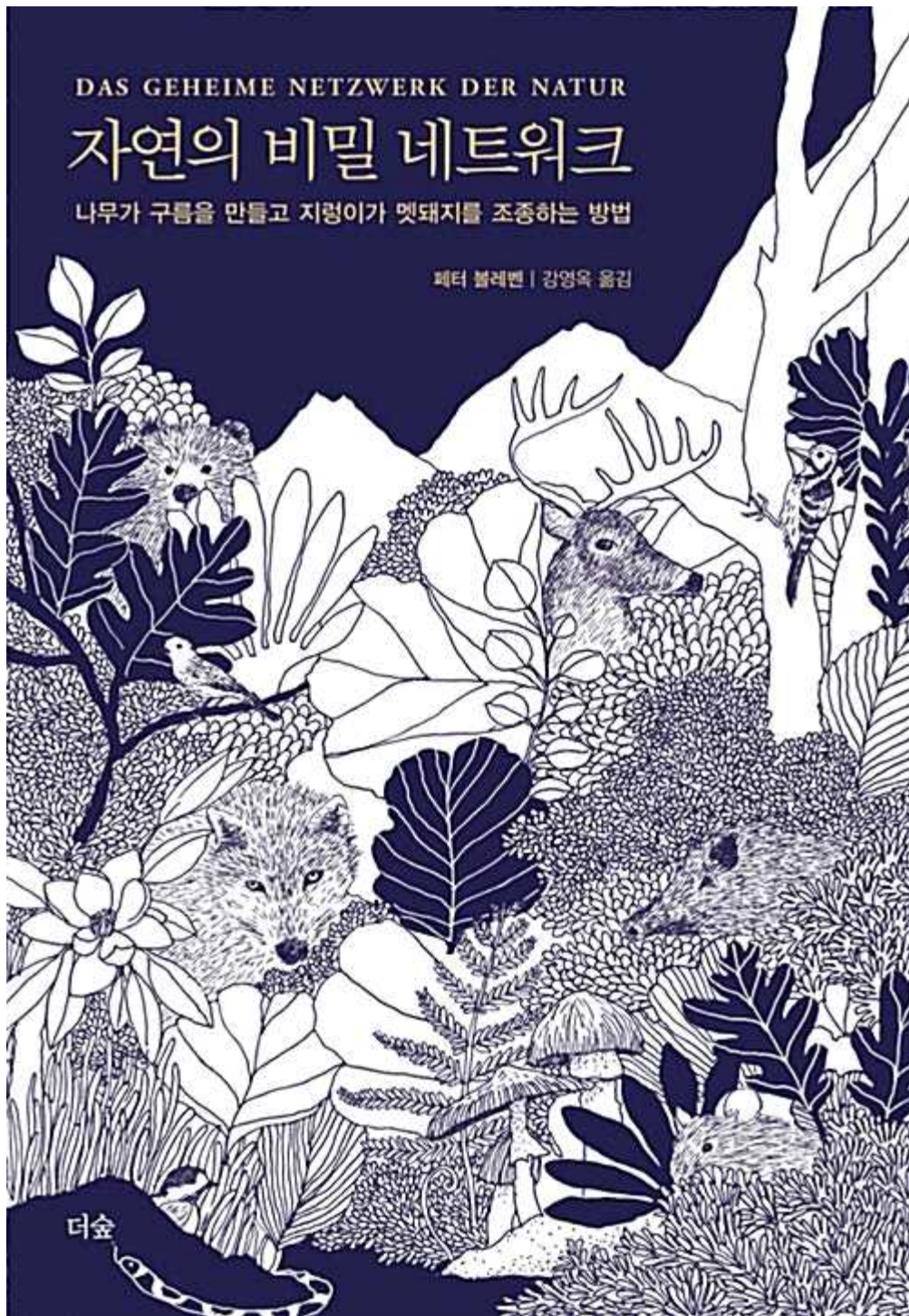
ISBN 979-11-92836-07-2 (44810) / ISBN 978-89-7199-432-0 (세트) / 값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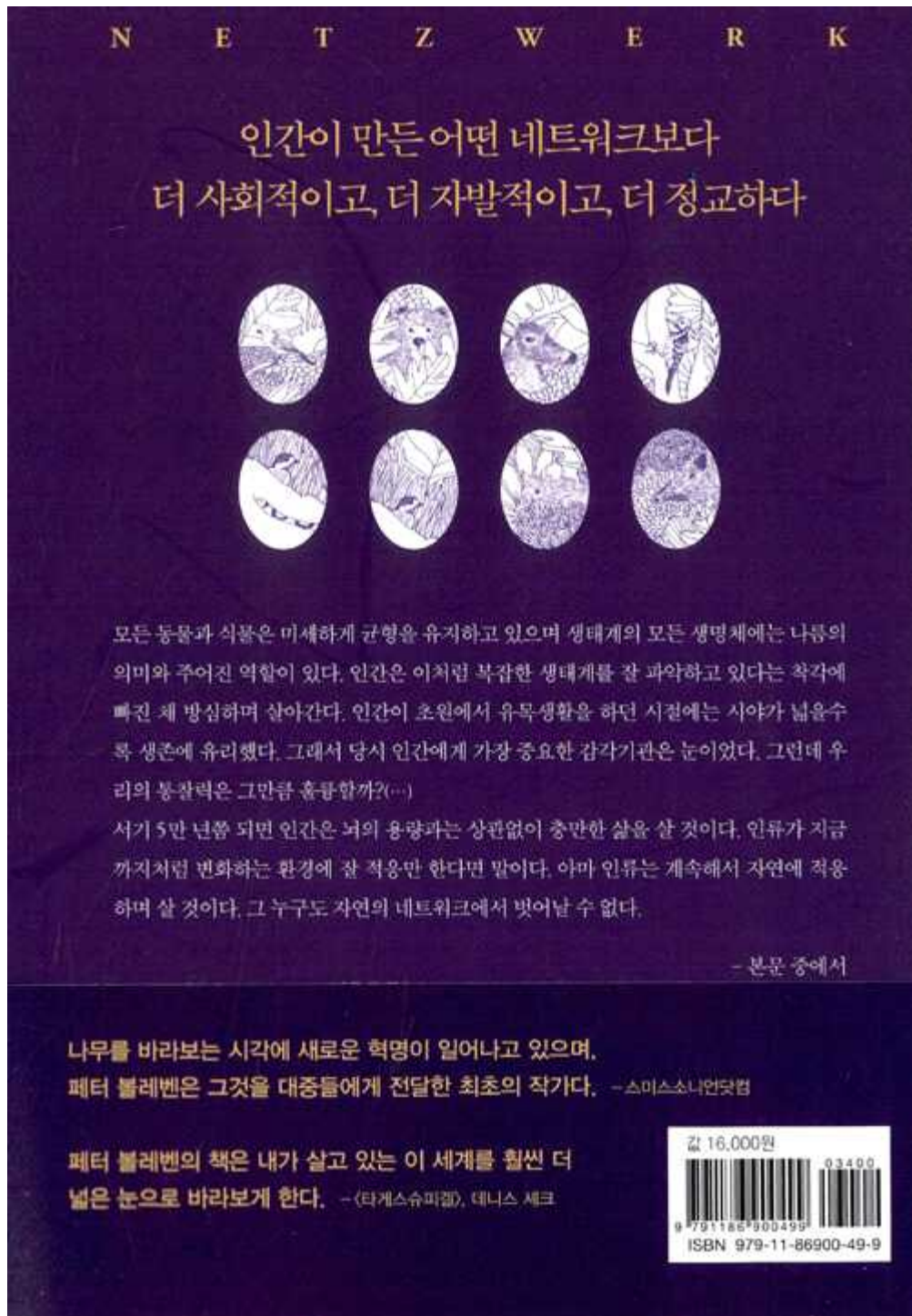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의 함께 살아가기, 자연과의 공존,  
함께 손잡는 연대와 돌봄의 힘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손에 꼽은 청소년소설!











정 도 상  
장편소설

# 은하행나무 소년

창비  
Changbi Publishers

똑같은 일을 겪어도 저마다 다른 기억, 다른 추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지혜도 지난 새벽에 그 끔찍한 사건을 다 보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외할머니와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다. 볼 물 떨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뇌의 회로가 바뀌는 다른 것일까? 어찌 되었든 지혜 때문에 외할머니가 웃는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 씨바, 행복해지고 말 테다.

본문 중에서

생각해보면 천사마을 사람들은 재개발조합이나 용역, 그리고 경찰과 싸운 게 아니었다. 함께 마을을 이루었던 인간관계와 싸우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우고, 보잘것없는 전재산과, 생의 밑바닥과 의도함과 싸웠다. 온갖 애증과 무너지려는 꿈과 격투했고 끝내 패배했다. 하지만 그 격투를 통해 그들은 존엄성을 지켜냈다. 존엄성이 건재된 패배는 패배가 아니다. 세상이 패배의 끝없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패배를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패배 속에서 소년은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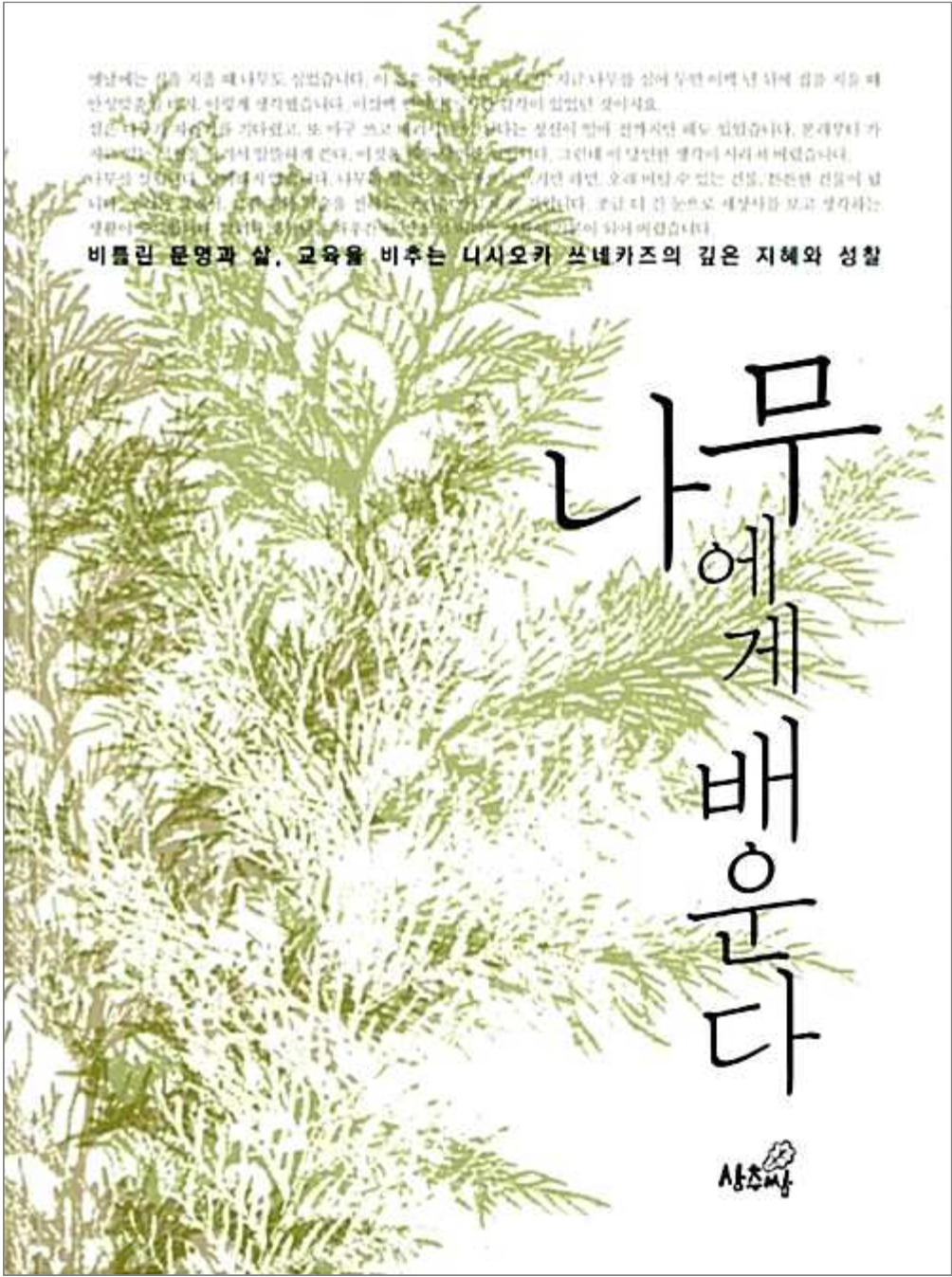
‘적기와 알’ 중에서

값 12,000원



ISBN 978-89-364-33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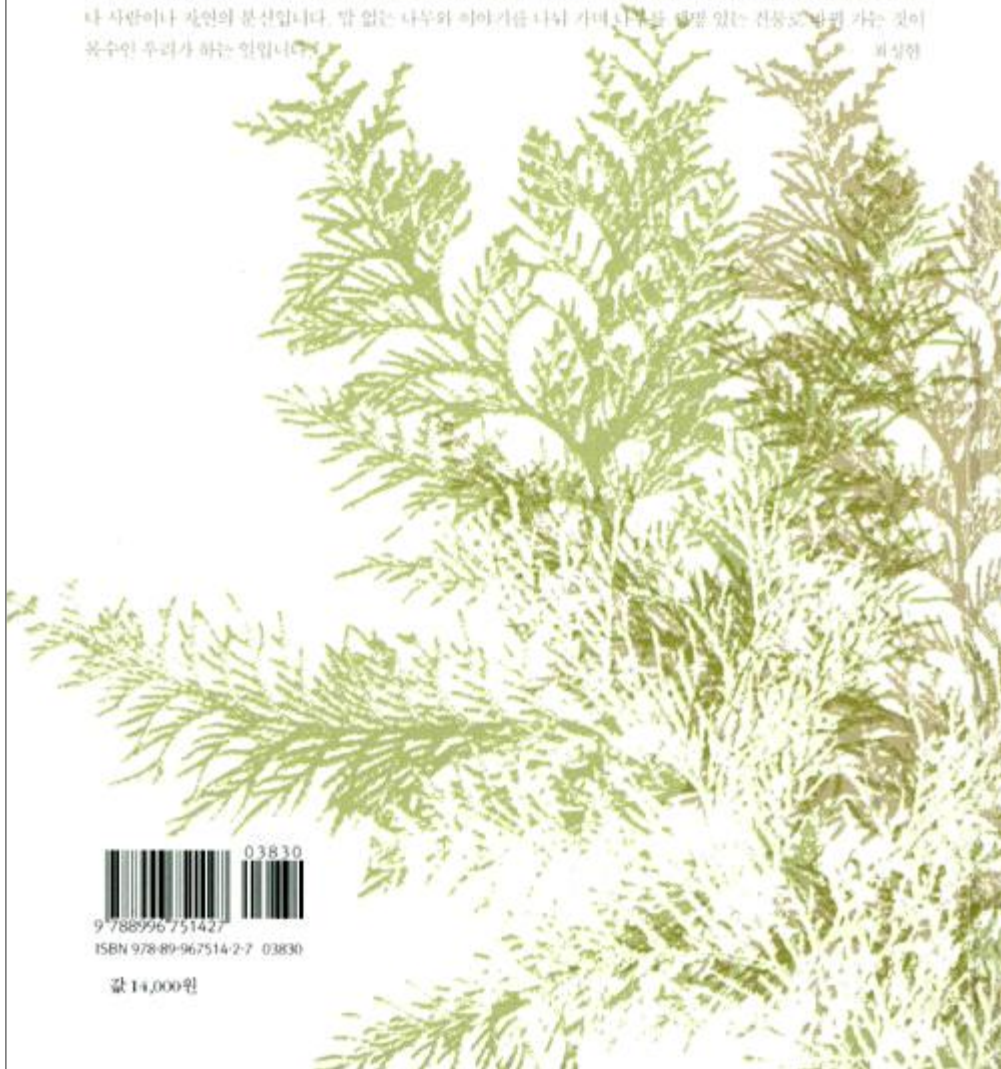
그들은 수도자와 같았다. 그들은 길을 찾는 수행자였다. 오로지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에 골몰한 뿐 얼마나 날  
을째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농사를 지었다. 농사가 그들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라는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  
다. 일이 없어도 견딜 수 있었다. 농사는 또한 그들에게 대자연은 보는 눈을 길러 주었다. 농사나 건축이나 같  
았다. 자연과의 조화, 그것이 바탕이었다.

니시오의 쓰네키즈는 자주 말했다.

나무는 대자연이 닦고 기른 생명입니다. 나무는 죽은 물건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사람 또한 생명입니다. 나무  
나 사람이나 자연의 분신입니다. 밭 없는 나무와 허허거름 나뭇 가에 나무를 생명 있는 건물로 바꿀 가는 것이  
목수인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최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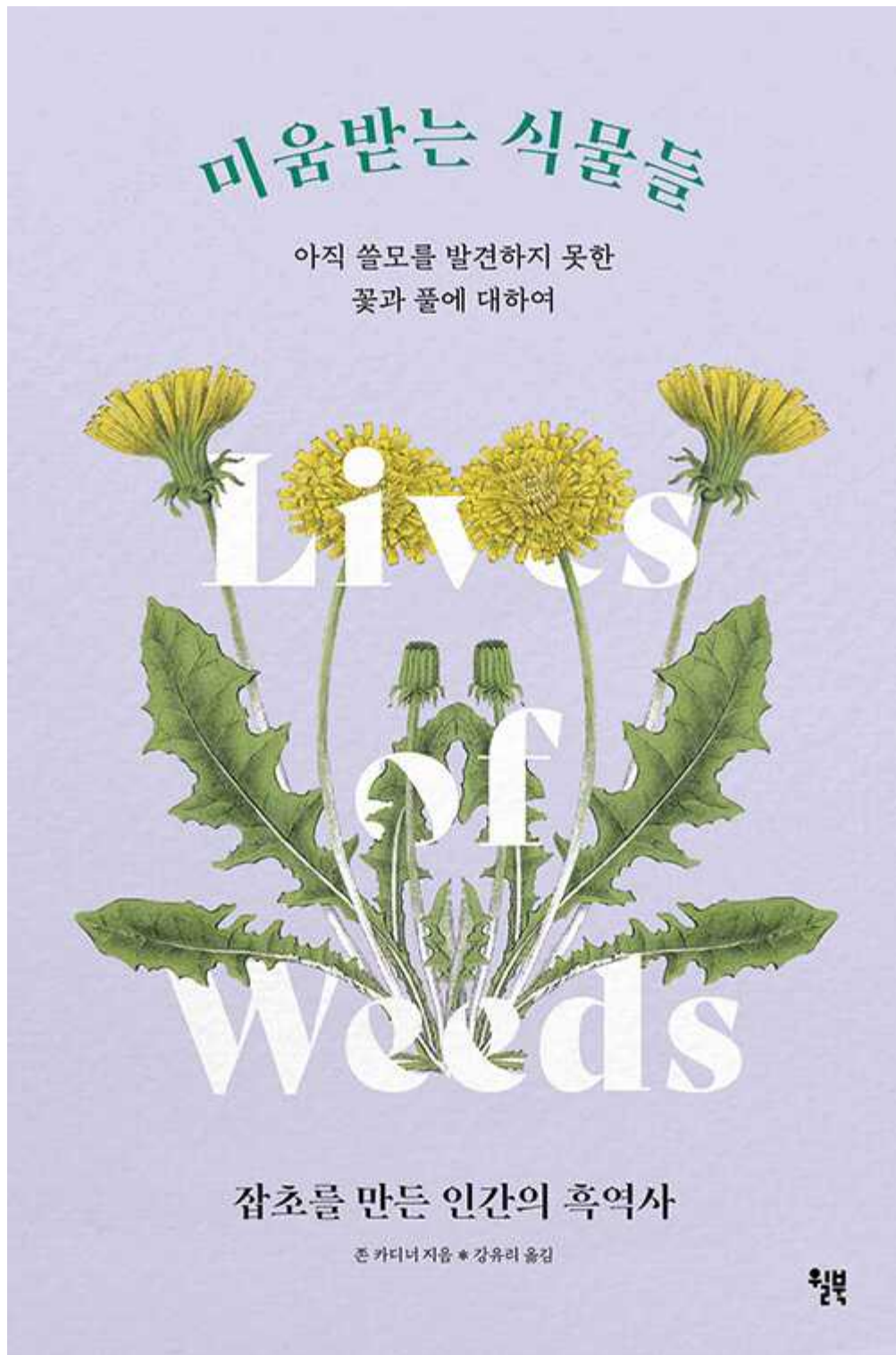


9 788996 751427

ISBN 978-89-967514-2-7 03830

값 14,000원





## 인간과 닮은 식물, 잡초의 세옹지마

'심리적'인 이유로 잡초가 된 민들레,  
노예무역과 얽혀 있는 플로리다 베가워드,  
암전하던 들꽃의 변신을 보여준 망초,  
전쟁과 환경 파괴의 틈에서 자라난 돼지풀...

인류의 삶에 파고든 여덟 종의 잡초가 들려주는  
기회주의와 저항정신과 바보스러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길수록 여느 식물 책에서 느끼지 못한 공감과 희  
열의 감정을 느꼈다.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의 저자  
가 하고 있다.

이소영\_식물세밀화가, 원예학 연구자



식물과 역사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여  
덟 개의 타래.

〈네이처〉

인간과 잡초의 '길고 지속적인 관계'를 탐구한, 전문가적 식  
견이 돋보이는 책. 흡입력 있고 매혹적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값 18,800원

ISBN 979 11 5581 495 6 (03480)







#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오은환 지음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는 자기 확신 에세이

매일 더 설레는 날을 살게 될 당신에게

북로망스

“나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도 꿈과 열정을 그려내는 당신을 위한 선물

\*\*\*

걱정과 불안에 삼켜지지 말고,  
살아온 순간마다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노력 끝에 당신의 삶이 피어나리라는 것을  
절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기를.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으로 잘될  
당신의 삶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값 17,500원

ISBN 979-11-91891-40-9 03810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  
나라는 식물을 가꾸는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창밖 미세먼지와 눈에 먼지 같은 사람.  
피부를 해치는 스트레스와 야근.  
나를 아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뾰족한 상처 말.  
예상치 못한 실수와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일주일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흐린 마음의 기후.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돌보자.  
물을 충분히 주고 햇볕을 쬐이자.  
시든 잎은 잘라버리고, 마음의 새순을 기다리자.  
인생의 대단한 결심 대신 작은 이것을 하자.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를 가꾸는  
셀프가드닝의 시작.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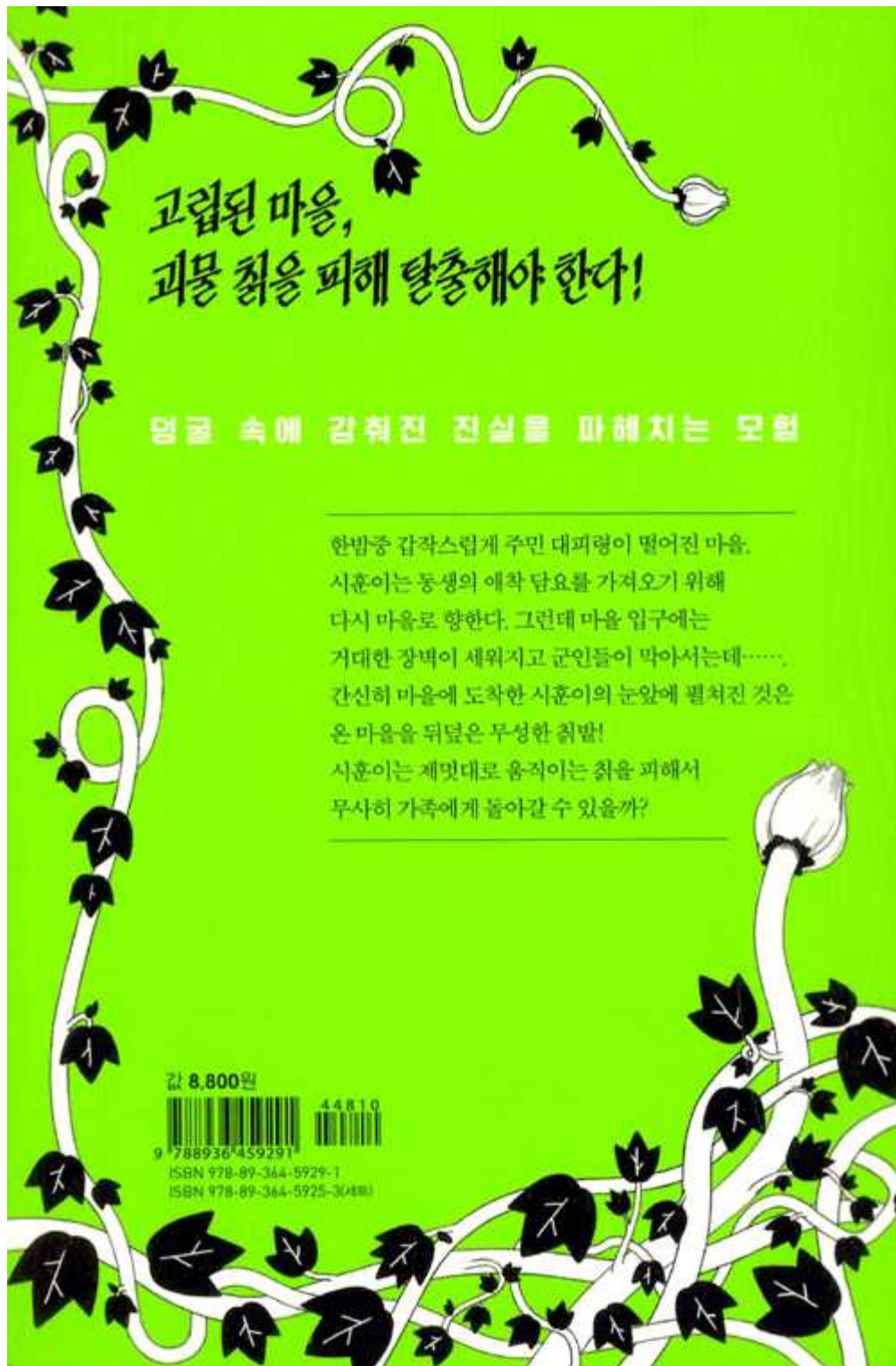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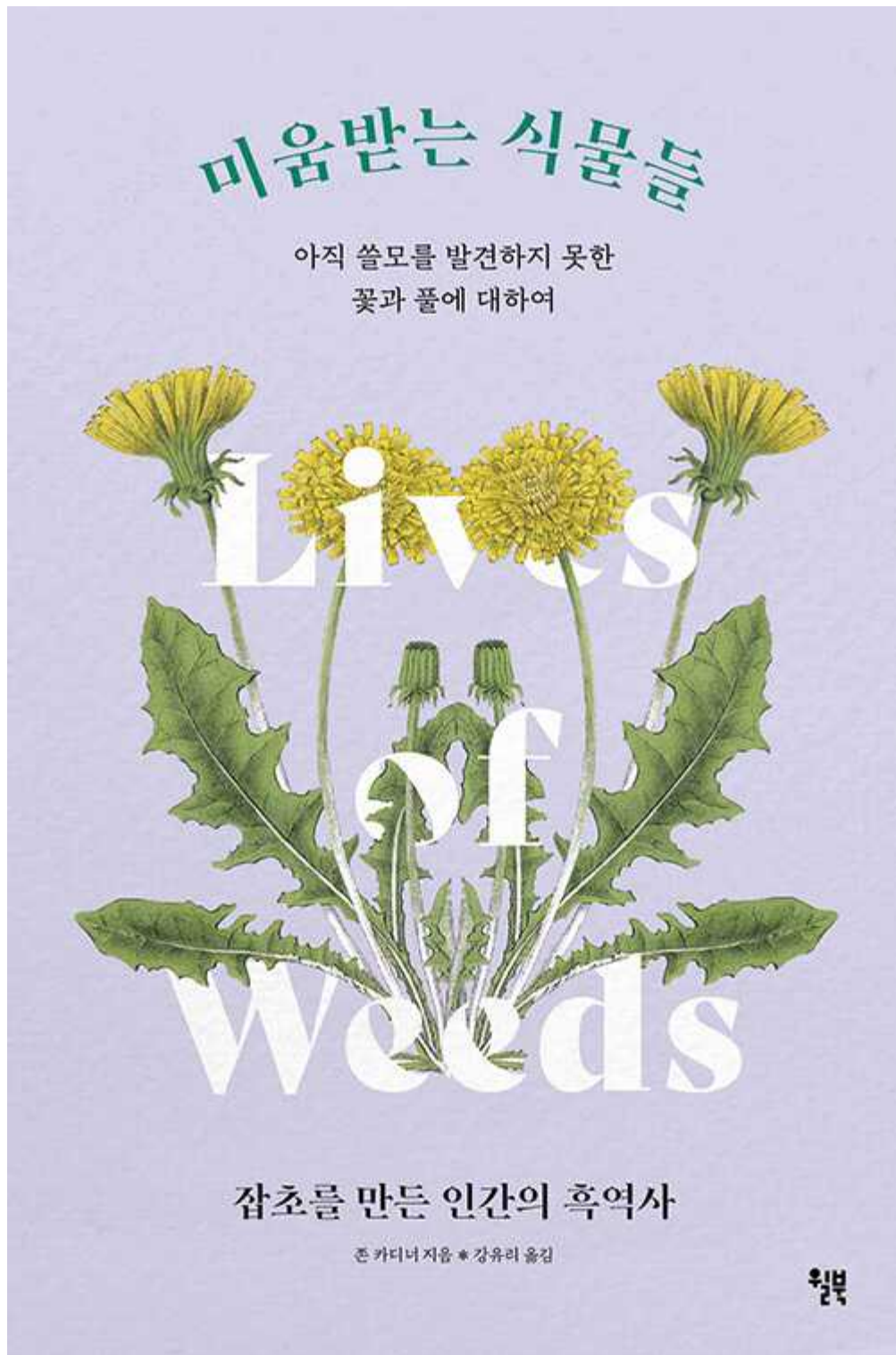
값 15,000원

ISBN 978-89-6833-325-5 03810









523.625 카28□



## 인간과 닮은 식물, 잡초의 세옹지마

'심리적'인 이유로 잡초가 된 민들레,  
노예무역과 얽혀 있는 플로리다 베가워드,  
암전하던 들꽃의 변신을 보여준 망초,  
전쟁과 환경 파괴의 틈에서 자라난 돼지풀...

인류의 삶에 파고든 여덟 종의 잡초가 들려주는  
기회주의와 저항정신과 바보스러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길수록 여느 식물 책에서 느끼지 못한 공감과 희  
열의 감정을 느꼈다.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의 저자  
가 하고 있다.

이소영\_식물세밀화가, 원예학 연구자



식물과 역사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여  
덟 개의 타래.

〈네이처〉

인간과 잡초의 '길고 지속적인 관계'를 탐구한, 전문가적 식  
견이 돋보이는 책. 흡입력 있고 매혹적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값 18,800원

ISBN 979 11 5581 495 6 (03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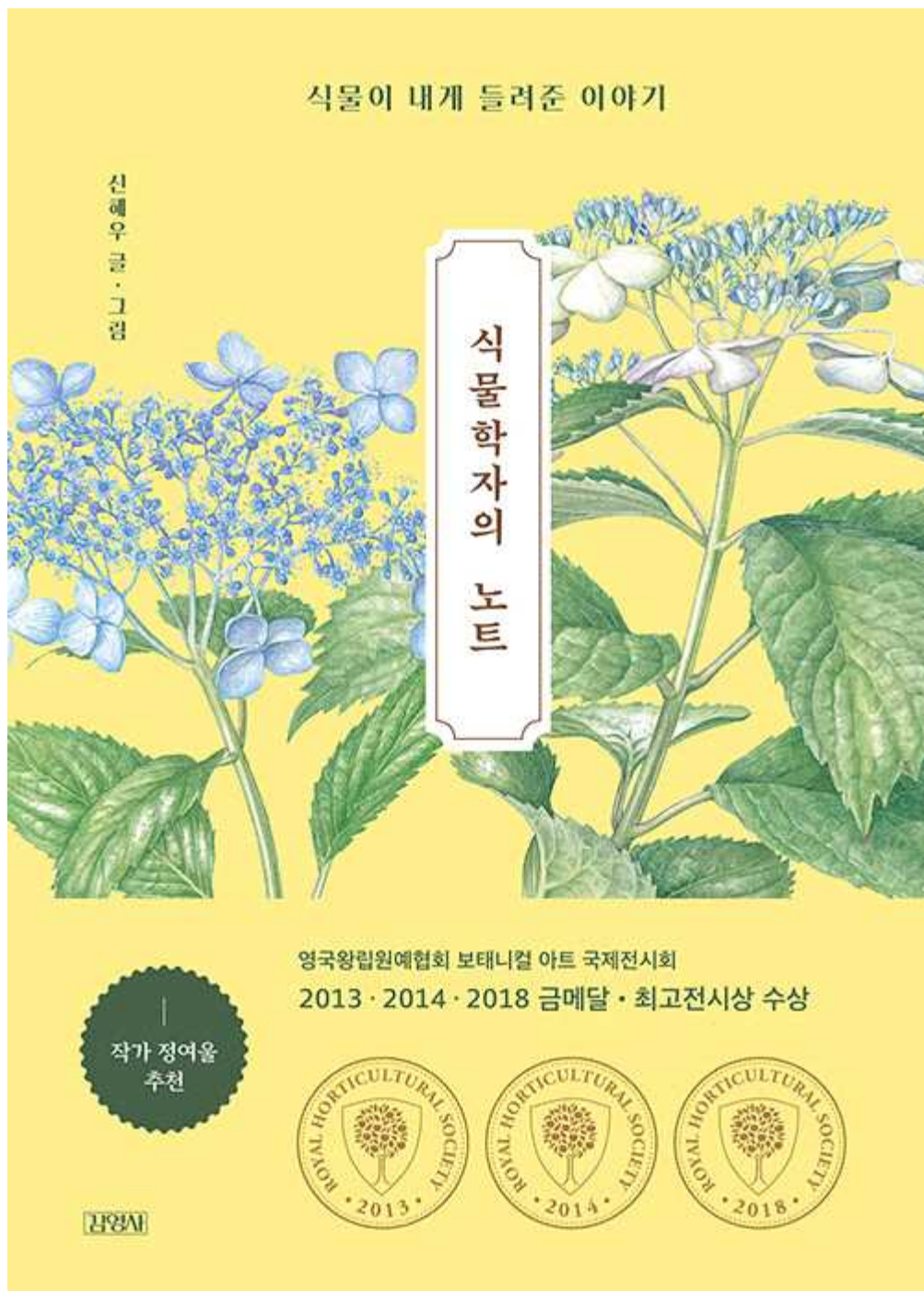


‘나는 식물세밀화를 그린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대상,  
‘식물’이 보여주고 들려준 세계에 관하여

작은 작업실, 책상 위 현미경에 머리를 박고 손톱만 한 꽃, 그 안의 꽃술, 그 위에 붙은 꽃가루를 들여다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거대한 바늘잎나무로 가득 찬 숲을, 수백 년의 나이테를 감각하며 나뭇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 씨앗 하나의 단위로 들여다본다면, 깊은 정글 한가운데서 만난 끈끈이주걱, 주차장 옆 공터의 쟁이밥과 ‘아는 사이’가 된다면, 전 지구에서 모인 온실 속 식물들, 현관의 이름 모를 야자나무의 시간이 어느 날부터인가 궁금해진다만……. 이 책은 묵묵히, 차곡차곡 이루어진 ‘식물의 세계’를 산책해온 작은 인간—식물학자이자 식물세밀화가가 10여 년간 식물원과 수목원, 산과 들, 정원과 공터를 찾아가 만난 식물과 사람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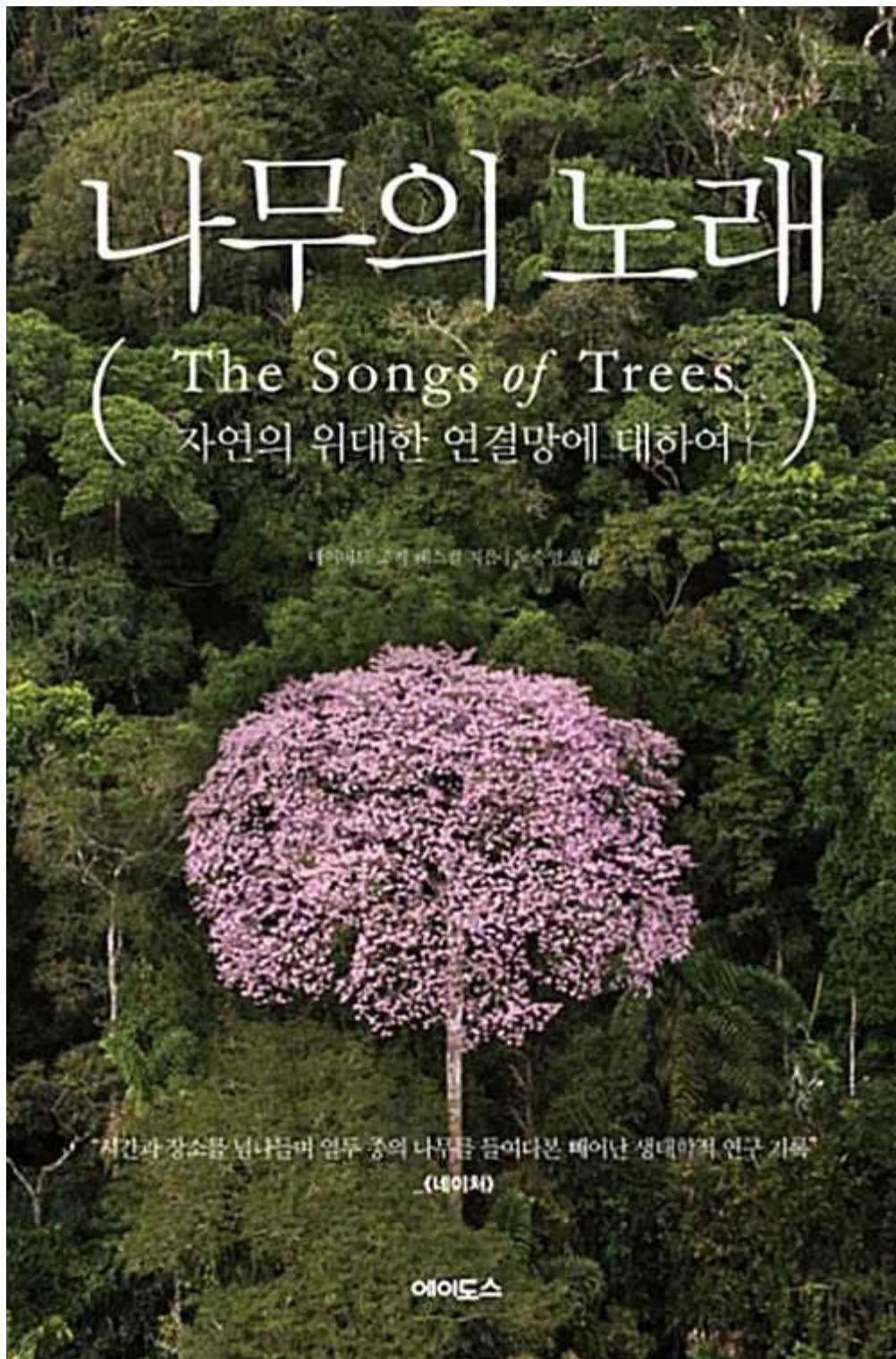
푸른 이파리들이, 하얀 꽃들이  
말 없이 건네는 위로와 응원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식물학자가 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난초가 무사히 탄생하고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곰팡이’라는 사실을. 아름답고 조용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식물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하게 역동적이고 열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식물학자가 되고 싶다. 식물들 곁에 평생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눈부신 축복을 느낄 수 있으니. 식물들의 조용한 속삭임을 생생하고 향기로운 문장의 오케스트라로 빚어낸 작가의 놀라운 솜씨에 찬사를 보낸다. — 정이음(작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 시적 감수성, 예리한 과학적 시각, 인간과 자연에 대한 눈부신 통찰!

### 《사이언스 프라이데이》,《브레인피킹스》 The Best Science Books of 2017

—— 과학적 시각에서 자연을 서술한 최근 저작 중에서 이처럼 유려하고 설득력 있고 풍요로운 책은 찾기 힘들다. **《타임스 문예 부록 Times Literary Supplement》**

—— 헤스켈은 오늘날의 자연문학 작가 중에서 최상급이다. 강렬하고 시적이고 흥미로운 『나무의 노래』가 그 증거다. 놓치지 마시길. **《데버러 리뷰(클리퍼링 수상작가)》**

—— 과학적 깊이, 서정성, 상상력 면에서 『숲에서 우주를 보다』에 비길 만하다. 헤스켈의 취지는 시공을 가로질러 자연의 상호 연결을 탐구하며, 인간이 더 지적이고 생산적이고 탄력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그물망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능하는 것이다. **《가디언》**

—— 헤스켈은 경이로운 작가이자 그에 못지않게 예리한 자연 관찰자다. 『나무의 노래』는 시적인 동시에 지적이며 아름다움과 사실감으로 충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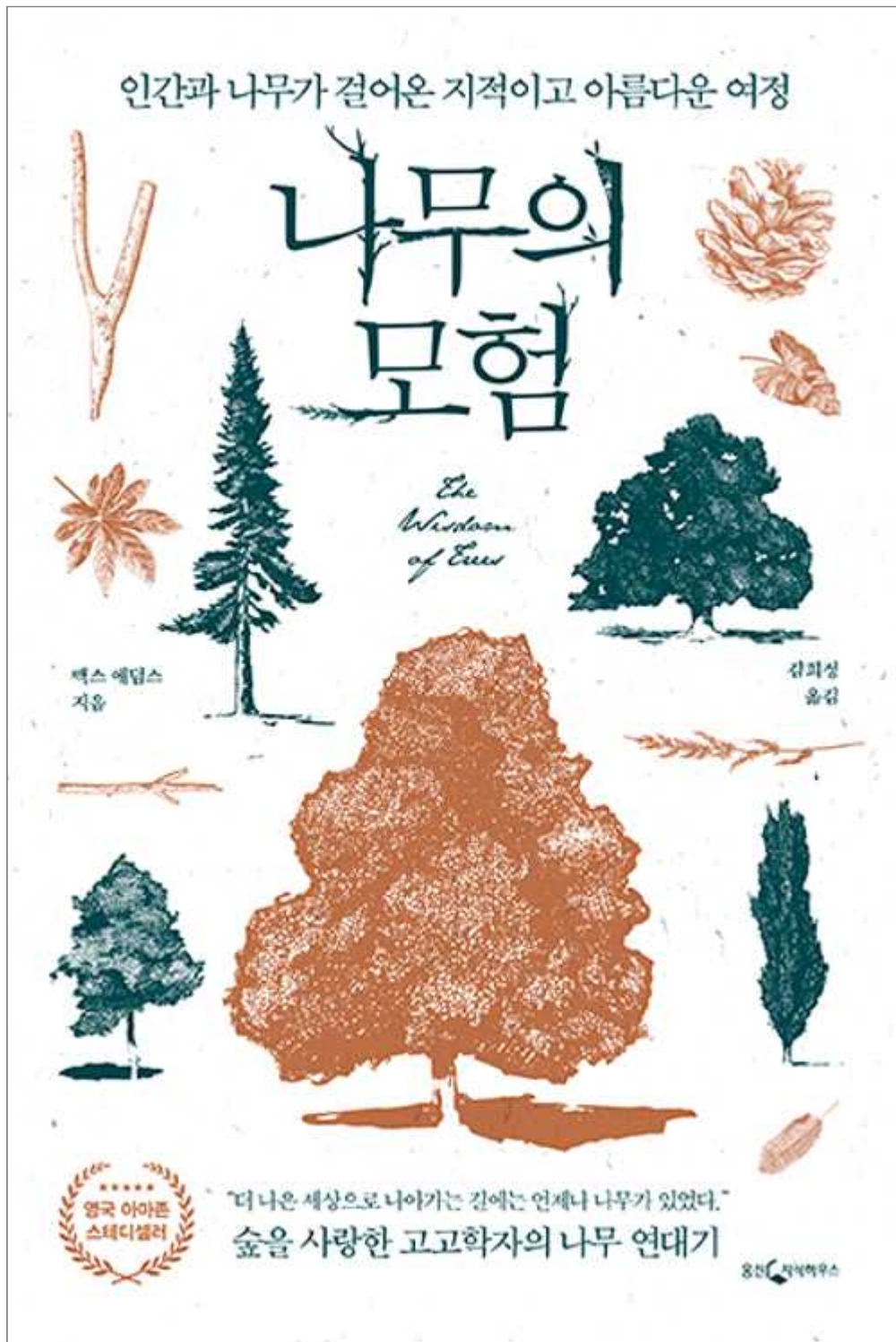
**《엘리자베스 콜버트(클리퍼링 수상작가) 70주년 기념 대담록, 저자》**

—— 헤스켈은 오래전에 과학에 대한 시적 산문이라는 새로운 문화 미학을 창시한 레이첼 카슨과 같은 드문 과학자다. 이 책에서 헤스켈은 서정적 산문과, 나무를 향한 그의 영적인 존경심으로 자신의 주제에 빛을 밝힌다. **《브레인피킹스(Brainpickings)》**

값 20,000원



9 791180 415185  
ISBN 979-11-85415-18-5



“나무는 우리를 세 번 따뜻하게 해준다.  
나무를 벨 때, 나무를 쌓아올릴 때, 그리고 나무를 태울 때.”

숲속 고고학자가 발굴한 인간과 나무의 오래된 미래



나무를 알고, 재료로 다룰 줄 알게 된 것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갖춘 최초의 지식이었다. 태초의 인간은 개암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렸으며, 참나무를 쪼개 집과 배를 만들어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미지의 세계로 기침없이 나아갔다. 재미 삼아 막대를 비벼대던 것이 불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냈고, 나무토막은 온갖 도구와 무기의 재료가 되어 농경과 정복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나무는 삶의 통찰을 얻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바위산에 우아하게 선 바가목을 보며 곧은 지조와 신념을 다지고, 큰 키와 들직한 몸통을 지닌 너도밤나무를 보며 웅장한 기백을 배웠다. 부처와 보리수나무, 아서왕과 산사나무, 로빈 후드와 주목나무 등, 역사 속 영웅들의 길에도 언제나 나무가 있었다.

『나무의 모험』은 역사와 과학, 예술을 넘나들며 나무와 인간이 함께해온 지적 여정을 그린다. 나무는 활과 도끼, 불쏘시개, 숯이 되어 문명의 기틀을 세운 한편, 숲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룬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출발한 위대하고 흥미진진한 모험이 지금 시작된다.



“나무에 관한 배후적이고도 기묘한 묘사!”

—《인디펜던트》

“2억 년에 걸쳐 진화하며 나무가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해왔는지 그 놀랍고도 신비한 여정이 담겨 있다. 나무의 쓰임에 관한 저자의 인식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타임스》

“서정적인 산문이자 여러 가지 지식을 근사하게 담아낸 책이다. 읽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밖에 나가 도토리를 줍게 될 것이다.”

—《이콜로지스트》







## 흔들리는 잎 한 장, 허투루 보지 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의 에너지 공작소, 잎의 운동 속으로

꽃을 이루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도 모두  
잎에서 변화되어 생성됐다는 게 괴테의 주장입니다.  
나뭇잎은 더 유리한 생존을 위해 잎은 포로,  
꽃받침잎은 위화(가짜 꽃)로 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 잎은 식물의 생존 바탕입니다.  
식물이 더 유리한 생존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바로 잎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_본문에서

## 광합성에서 월동까지 나뭇잎 생존 활동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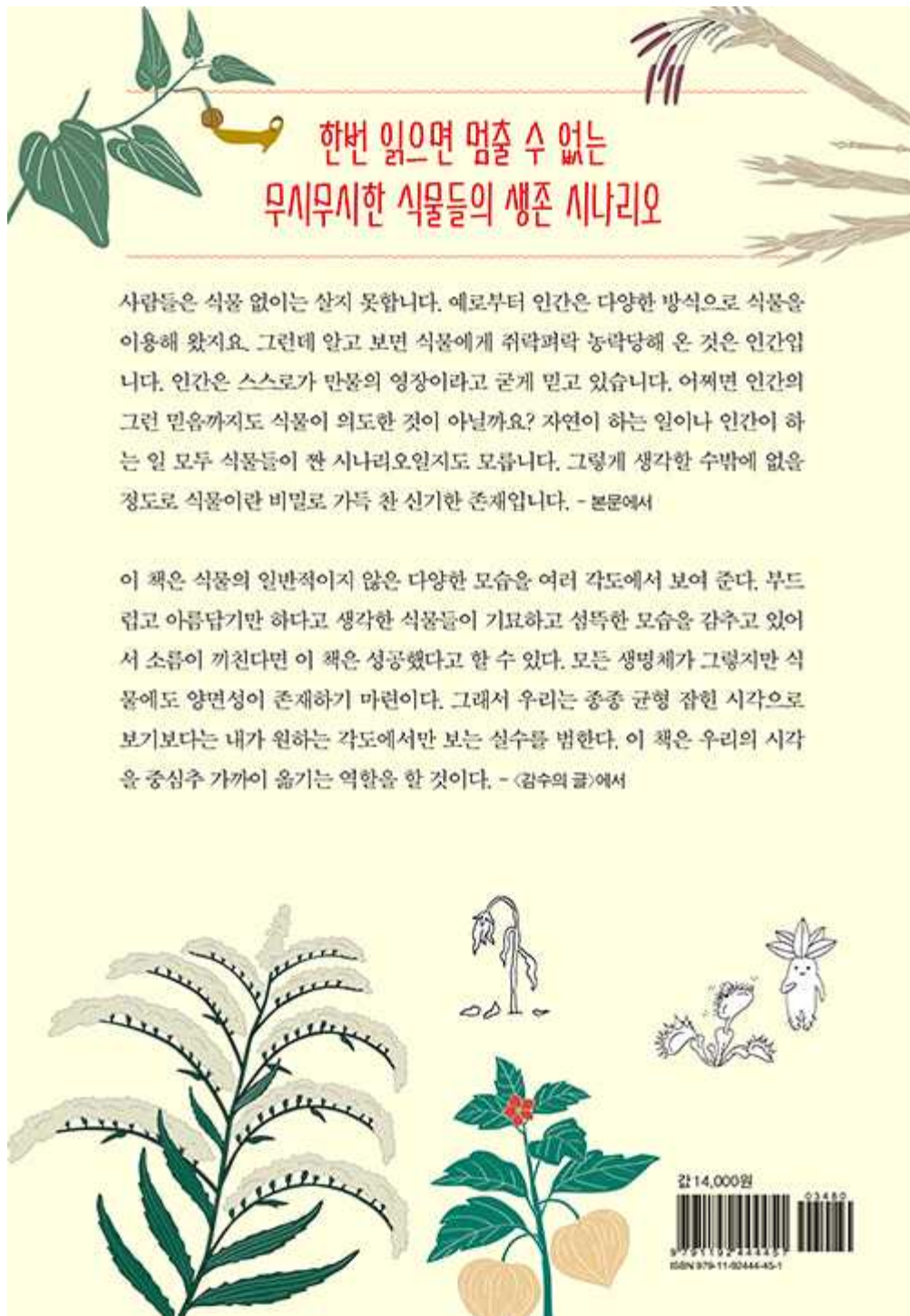
- ✓ 바람이 불어서 잎이 흔들리는 걸까,  
잎이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걸까?
- ✓ 연잎의 물방울은 왜 스미지 않고 굴러다닐까?
- ✓ 양배추잎 한 장에 기공이 1천만 개라고?
- ✓ 플라타너스는 어찌다 가로수로 선택됐을까?
- ✓ 소나무와 잣나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 식물에게도 지성이 있다면?
- ✓ 홍단풍에는 염록소가 없는 걸까?
- ✓ 잎 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련도 있다?
- ✓ 옥수수 한 그루는 일생 동안 몇 리터의 물을 내보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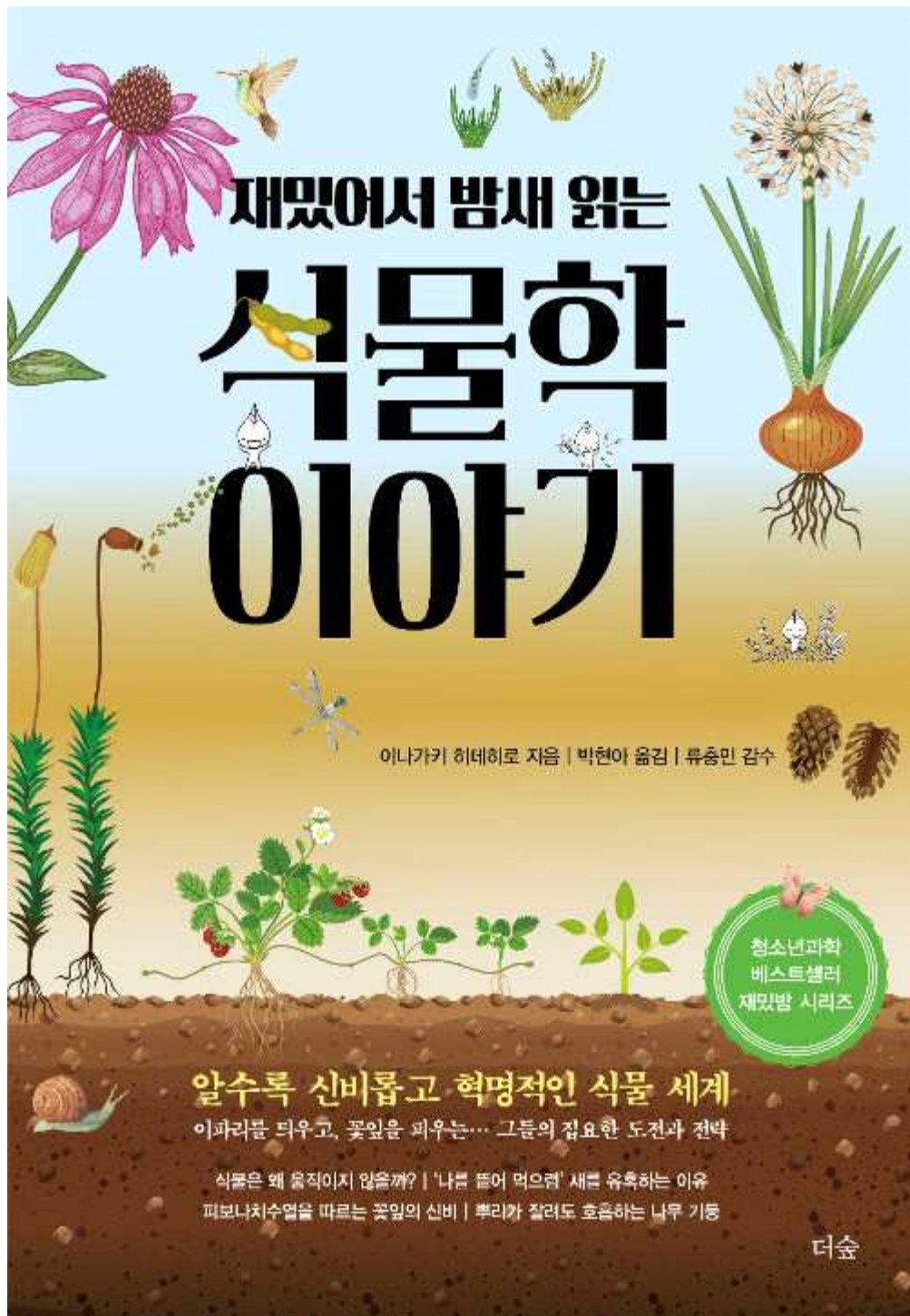
www.maumisan.com  
ISBN 978-89-6090-726-3 03480  
값 16,500원













이제다 마주친 우아하고 고고한 식물  
의외로 다이내믹한 식물의 매력에 빠져 보자!



식물은 인간처럼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닐 수 없다. 어째서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 만약 식물에 묻는다면,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째서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걸까"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다른 생물을 본다. 왜 민들레는 노랗고, 제비꽃은 보라색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식물의 세계는 의문투성이다. 식물은 당연한 듯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절대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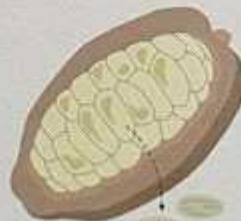
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식물학'이라고 하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다는 생각부터 떠올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흥미진진하고 불가사의한 식물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채소류의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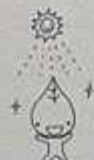
케미칼류의 씨앗



화거오의 씨앗

**Q.** 식물이 카페인이라는 독을 만든 이유는?

**A.** 곤충과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기록 참조)



값 12,000원



9 791186 900932

ISBN 979-11-86000-03-2 03480







**“더 많은 햇빛을! 더 빨리, 더 높이!”를 위해 경쟁하는  
살벌한 자연계에서 식물들이 선택한 ‘함께 사는 길’**

식물은 균류와 싸운 끝에, 균류의 침입을 막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 꽃가루를 노리는 곤충은 꽃가루의 운반책으로 쓰며 상리공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동물과의 싸움을 통해 씨방이 먹히는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밀 씨를 지키던 씨방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씨방을 비대하게 하여 열매를 만들고, 동물과 새에게 먹이로 주는 대신 씨를 옮기게 했다. (…)

다른 생물과 공존 관계를 구축하려고 식물이 한 일, 그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고 먼저 생거름으로써 서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떤가? 숲의 나무를 베어내 생물의 터전을 빼앗고, 식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결국 인류는 모든 생물을 몰살하고, 모든 식물을 멸종으로 내몰 것이다. 다른 생물과 ‘공존’하기를 택한 식물이 올는지, 다른 생물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고 멸종으로 내모는 인류가 올는지, 정답은 곧 나올 것이다. 그때 인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 마치며 〈씨앗 속에서〉 중에서



값 14,000원  
ISBN 979-11-86900-71-0